

문체·신체·정체, 공론의 문장과 삶의 문장
—조소앙의 『동유약초(東遊略抄)』(1904-1912)와 유학기 문장에 대하여

황호덕(성균관대)

글은 말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글은 표이므로 표를 남에게 드러내어 그 눈에 비추어보는 경락이 들어가면
몸이 깨닫고 안다.

— 주시경, 「대한국어문법」(1906) 중에서

목차

- | |
|---------------------------------------------|
| 1. 민족과 골육(骨肉), 국문과 한문-문체, 신체, 정체 동이론(同異論) |
| 2. 官文, 관료로의 길: 대한제국의 마지막 유학생, 황실특파유학생들의 입시 |
| 3. 國文, 입신과 계몽의 길 |
| 3.1. 관료제와 국한문체 |
| 3.2. 교술적인 것으로서의 국한문체: 報道와 論說의 문체 |
| 4. 人文, 사람의 길: 사적 인간, 신체 속의 문체들 |
| 4.1. 정(情)의 분자로서의 한시문 |
| 4.2. 우국의 정(情), 골육의 정, 한시문: 거꾸러진 깃대, 마음의 문장들 |
| 5. 중국혁명과 신아(新亞)의 문체로서의 한시문 |

1. 민족과 골육(骨肉), 국문과 한문-문체, 신체, 정체 동이론(同異論)

문체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사람만의 무늬가 글에 새겨져 있다는 뜻일 터이다. 또한 문체는 정치적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도 한다. 말(logos)과 정치(polis), 말하는 동물과 정치적 동물이 불가분(不可分)의 하나라는 뜻일 터이다. 이를테면 근대 문체는 한 사람의 내면과 세계를 매개하는 투명한 장치 혹은 그런 환상의 발명과 관계되어 있다거나, ‘국어’ ‘국문’으로 불리는 근대 문체야말로 민족국가의 집단 심성을 조직하고 정치적 공동체를 상상하게 하는 핵심 장치였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떠올려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체는 신체와 관계된 한편 정체(政體)와 관계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신체=정체=문체를 하나로 엮어내는 장치들의 발명이 간단히 이루어졌을 리는 없다. 우선 삼자를 매듭짓는 작위가 필요하고, 그런 몸-말-공동체를 자연적인 결합으로 느끼는 ‘작위성의 말소’도 필요하다.

칸토르비치에 따르면, 왕 혹은 주권자를 두 개의 신체, 즉 자연적 신체(body natural)와 불사(不死)의 정치적 신체(body politic)로 분할하는 데에는 지난한 역사적·담론적 투쟁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분할된 왕의 두 신체라는 의제(擬制/fiction)야말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고 제도와 정부를 구성하는 근대적 민주정을 예비토록 한 중대한 계기였다는 것이다.¹⁾ 이른바 왕의 자연적 신체에 포개어져 있는 ‘정치적 신체’를, 인민의 일반의지의 표상 기관인 ‘의회’의 근거로 읽어냄으로써 정치적 신체에 의한 자연적 신체의 말소가 일어날 수 있었다.²⁾ 그런 의미에서 헌정(憲政), 공화정 등을 형식으로 갖는 정체(政體, political body)란 (주권자의) 자연적 신체의 말소를 통해 상상된 근대 국가의 몸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일단 이 분리가 일어나면, 왕의 신체[玉體, 御眞]나 왕의 언어[詔勅, 勅語] 역시도 정체의 현전화(現前化)에 기여하는 요소로 전치(轉置) 가능해진다.

요컨대 근대 ‘정체’의 성패는 인민 주권 개념에 의해 왕의 신체를 분유(分有)해 가진 개개의 국민 혹은 인민이 자신이 속한 정체(이를테면 국민국가)에 스스로를 일치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었다.

1) Ernst H.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Princeton: Princeton UP, 1957, p.7.

2) 市野川容, 『身体/生命』, 岩波書店, 2007年, 30頁

일종의 매듭 혹은 매체(媒體)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체와 신체의 일치라는 의제(擬制, fiction)를 신념과 행위로서 실현하는 매체의 확보란 근대국민국가의 핵심적 과제에 다름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개별자의 의지를 일반의지로 매개하는 공용어, 국어, 국문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를테면 ‘국사’는 기나긴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 가사(可死)의 존재인 개별 신체들을 정체 안에서 영속하는 집단적 주체로 의제(擬制)화했다. (당신이 죽어도 당신의 후손은 이 국가 안에서 영속한다. 국사를 망각하지 않은 국가는 회복가능하다.) 한편 ‘국어’와 ‘국문’은 정체와 신체 사이의 거리, 정치(polis)의 언어(logos)와 개별 신체의 목소리(voice) 사이의 거리를 ‘경험적/공간적/초계급적’으로 압착시킴으로써, 인민 모두가 발화하고 해독하는 말을 통해 정체가 위치잡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의제(擬制)를 전면화했다. 개별 신체의 목소리는 국어 혹은 국문이라는 장치를 통해 정체의 언어로 탈육화(脫肉化)된다.

장 퉁 낭시는 정체(‘정치적 몸’)와 신체(‘몸’), 그리고 문체(‘기호 작용’)를 일종의 “동어반복”으로 설명한다.

‘정치적인 몸’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정치적 건립은, 공동체는 그 의미로 몸을 보유하고 몸은 그 의미로 공동체를 보유한다는 기호 작용의 절대적 순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몸은—그것의 제도인—공동체를 기호로 갖고, 공동체는—왕이나 의회의—몸을 기호로 갖는다. 무한한 전제(前提)는 이처럼 이중의 포함관계를 갖는 몸-공동체이다. 한편으로 몸 일반은 스스로의 유기체적 내밀성과 주체(확장되지 않는 것 *res inextensa*)로서의 자기-느낌, 자기-접촉을 그 자신의 의미로 지닌다.³⁾

정치적인 몸-‘정체’와 ‘신체’가 그 자체로 동어반복인 이유는 언어라는 기호 작용-이를테면 문체를 통해 양자 사이에 절대적 순환성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를 민족국가라는 ‘몸-공동체’에 한정해 생각해 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비교적 한정된 지역에서 언어, 생활관습, 정치제도를 공유하는 인간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족으로 사념(imagine)하는 일에는 민족주의라는 실천과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민족국가 창설에의 정치기획이 요구된다.⁴⁾ 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체와 신체를 일치시키는 사념 혹은 실천에는 반드시 그런 사념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몸과 공동체 간의 이중의 포함 관계를 순환시키는 기술로서의 ‘기호 작용’-민족과 개인을 매개하는 문체, 민족 전체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투명한 문체도 그런 기호 작용 중 하나일 터이다.

하지만, 문체는 정체의 것이자, 사람의 것이다. 문체가 정체와 신체를 잇는 매체라 할지라도, 정체와 신체 사이의 대립이나 거리가 존재하는 한 문체는 신체로 되 돌아온다. 일반의지와 개별의지의 대립이 근대 민주정의 아포리아로 존재하는 한에서, 또 현존하는 정체가 인민 혹은 인민의 예(例)인 개별 신체의 의지와 괴리되어 있다고 믿는 한, 문체는 하나의 구체적 신체로 되 돌아온다. 단적으로 말해, 낭시가 쓰고 있는 바의 정치-몸-말의 절대 순환이 스스로의 유기체적 내밀성과 주체로서의 자기-느낌, 자기-접촉까지를 포함할 수 없는 균열의 순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쯤해서 두 개 이상의 섞이기 힘든 정체 관념이 공존하는 근대 초기의 상황이나 제국-식민지 관계처럼 정체와 신체가 대립하는 경우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정체에서 튕겨 나온 말, 특정 정체 내에서 순환할 수 없는 말은 유기체적 내밀성으로 돌아와 현존하는 일반 문체와는 다른 내부의 기호를 불러낼 수도 있다. 거기서 그 몸은 전제된 몸-공동체에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 다른 몸이 된다.

‘조선의 얼’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선 민족의 영속성을 역사적으로 틀지우려 했던 정인보는 그의 지음(知音)이었던 변영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시문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3) 장 퉁 낭시, 「기호 작용을 하는 몸」, 『코르푸스-몸 가장 멀리서 오는 지금 여기』, 김예령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pp.72-73 낭시는 ‘한계에 이른’ 정치 속에서는 정치와 의미의 합병, 즉 사건을 기호화가 아니라 사건을 발생시키고 측정하는 정치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4) 김향, 「개인, 국민, 난민 사이의 ‘민족’」, 『제국일본의 사상』, 창비, 2015.

홀로 생각하건대, 문자는 몸과 서로 의지하니 이것은 나고 자라면서 버릴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말한다면 호응이 없고 불러도 화답함이 없으니 뜻이 울울하여 자득(自得)함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형이 있어 함께 좋아해주시니 이는 골육(骨肉)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까.

(獨念, 文字, 與形軀相依, 此生長不可捨棄, 而言而無應, 唱而無和, 意鬱鬱不自得, 而幸有兄與之同好, 此如骨肉無異)⁵⁾

아울러 그런 정인보에 대해 이현규(李玄圭)는 이렇게 적어, ‘골육’의 정을 표하고 있다.

정경시(정인보: 인용자)가 매일 저에게 오니 서로 골육과 같았습니다. 그 자취인즉, 타인이 보기에는 남다르지 않을 수 없었을 터입니만, 저는 그 같은지 같지 않은지 분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로 못 본지 십년 너머에 그의 문장은 탁월해져서 수백 년 사이 쉽게 볼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鄭景施每日就我 相與如骨肉 其迹則人見之不能不異 而吾不暇辨其同與不同也 不相見爲十年餘 其文章超詣 數百年不易見也)⁶⁾

이들은 이미 희미해진 소리[稀音]인 한시문으로 뜻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었다. 한시문 교류를 통해 남다른 교우를 나누며 서로의 ‘몸’이 다르다 느낄 수 없는 상태(骨肉無異)에 도달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인보가 문자=몸[形軀]의 도식을 당대의 정치적 요구(정체 구상)보다는 인간 신체의 ‘생장(生長)’에 근거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태준, 이철원 등으로부터의 수다한 한학의 퇴행성 비판이 있었음을 상기하면, 정치적 몸 이전에 자연적 몸이 있고 몸-공동체와 기호의 관계 역시 민족공동체-민족어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강조해 둔 표현일지도 모른다.

문체를 정체에 일치시키는 일이 여하한 것이든, 몸과 문자는 나고 자라면서 서로 의지하게 된 것이니 쉽게 내다 버릴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오히려 둘 이상의 몸이 하나의 문자 속에서 진동하는 공(共)-존재적 느낌(문자를 사이에 두고 하나의 골육이라 느끼는 일)은 한글이나 국한문체보다는 자신에게는 한시문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인보 스스로도 공론과 학술의 문장으로 사용한 ‘국문’이 민족으로서의 공-존재 의식의 소산이라면, 한시문을 주고 받는 일이란 서로를 민족 이상의 ‘골육(骨肉)’, 즉 뼈와 살을 공유한 하나의 몸[‘骨肉無異’]으로 확인하는 일에 가까웠다. “조선의 얼”을 통한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단일성 확보와는 별도로, 한시문은 정체에 의해 말소된 자연적 신체에 얽힌 것이자, 이제 막 생겨난 문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구한 업”(久壽之業, 변영만)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 몸-공동체는 그저 저들 간의 시사(詩社)에서나 가능한 한문의 그늘, 자취에 불과한 것일까. 소외되어가는 한문 문장을 추구하여 일정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서로 골육과 같은 연대의 감정으로 묶이게 된” 일은 딱히 한반도에 국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근대에 있어서도 한시문의 공유는 “도(道)로 표현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천하를 고민하는 사(士)의 입장에서 근대 문명을 성찰하는 한문 지식인의 입장으로 전환될 기반”이 되었으며, 중국의 문인 정객들과의 교류는 이들이 한결같이 청년기에 거친 바의 행로였다. 여기서의 도가 성리학적인 것이든 양명학적인 것이든 고증학적인 것이든 아니면 완전히 신문명에 관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한시문이 몸-공동체의 느낌을 통해 정치적 결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몸글’로서 문체였다는 점이다. 중국 상해에서 동제사(同濟社) 결성하고 이를 다시 중국 정객들과 연대한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로 개변해 나갔던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그리고 조소앙의 행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망명’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던 독립운동의 ‘국외성’이라는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글과 공-존재적 느낌을 단순히 중국을 기지로 삼았다거나, 중국 정객들을 독립운동에 이용하려 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몸에서 나온 정(情)의 문자가 다른 몸을 관류해 다시 유기체적 내밀성

5) 鄭寅普, 「與卞薊篁榮晚書」, 이가원 편, 『한문신강』, 신구문화사, 1964, p.292. 김진균, 『모던한문학』, 학자원, 2015, p.307에서 인용)

6) 李玄圭, 「答金嘯然」, 『玄山集』(역대문집총간), p.78. <http://www.mkstudy.com>. 권태성의 번역을 참조했다.

으로 순환하는 일이 가능했다. 이들이 혁명과 민족국가 건설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전근대적인 학술공화국(Republic of Letters)의 남은 자취라 볼 수만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들 사이에는 민족국가적인 정체=문체 개념과는 다른 신체=문체='다른' 정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을 터이다. 국문을 통한 민족적 일체감과 대비해 이를, 한시문에 기반한 골육무이(骨肉無異)의 정(情)이라 잠칭(潛稱)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하여 이들이 조선(과 중국)의 운명이나 행로와 관련된 어떤 공동의 비전을 이 골육의 영속과 연대에서 찾으려 했던 것도 분명한 것 같다. 때때로 이 골육무이의 몸-공동체의 범위는 민족의 범위보다 훨씬 작기도 했고, 훨씬 크기도 했다.

문체는 정체와 신체 양쪽에 개입한다. 이 결합에서 때때로 문체는 매체가 매듭이 아니라, 그 자체 공-존재성의 그릇(器)이 되기도 한다. 한시문을 통해 좌절된 것, 때 이른 것, 일반의지로 번역해낼 수 없는 것, 자연적 신체에 속한 것이 신체 안에서 다시 씌어지고, 재차 정치적 신체로 환류하기를 기다린다. 한시문의 문체는 문자와 몸의 동시적 생장이면서, 또한 골육을 같이 하는 다른 몸-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역사의 영속을 말하는 고유주권론과 중국과의 연대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민족국가라는 정체(政體)를 되돌리는 활동으로서 재의미화되었던 것이 아닐까.

일반의지에 개입하는 투명한 목소리를 상징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믿을 수는 없는 시기, 정체의 분열이 문체의 분할로 존재하는 시기에 하나의 신체가 민족이라는 전체를 상상하기 위해 다른 문체, 다른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 때의 민족은 바로 여기의 민족 뿐 아니라, 과거의 유구한 집단, 현재를 살지만 과거의 언어로 사는 집단, 미래에 도래해 그 문장을 해독할 집단을 복잡다단한 형태로 포함하는 그런 민족이다. 골육을 나눈 가족, 골육이라 느끼는 이웃, 그리고 민족, 한문과 국문, 조소앙을 떠올린다. 정체(政體)와 신체(身體)를 하나로 단단히 묶고 이를 묶는 국문을 쓰며, 골육으로 사무치는 소회를 한시문으로 표현하던 한 사상가, 실천가의 행로. 민족을 유구하고도 실정적인 것으로 사념했으면서도 민족어의 문체보다는 한시문에서 진정한 몸-공동체의 느낌을 구했던 조소앙에게, 정체-문체-신체의 관계는 여하한 것이었을까. 다기한 문체들과 정체, 신체의 포함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전의 연구에서 주로 중국 망명 후인 청장년기에서 노년까지의 공론 활동이나 외교문서, 개인 저술 등을 논했기⁷⁾, 여기서는 유학기의 문장에 한정하여 앞서 제기한 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⁸⁾

광무(光武) 8년 1904년 10월 9일 남대문정거장을 떠난 대한제국의 황실특파유학생들은 인천, 목포, 부산, 나가사키를 거쳐 10월 15일 도쿄에 도착했다. 그리고 조소앙은 1904년 10월 9일부터 1912년 5월 31일까지 대략 8년간의 도쿄 유학 생활의 기록을 『동유약초(東遊略抄)』라는 제목의 일기로 남겼다.⁹⁾ 거기에는 나날의 기록과 편지와 기고한 논설과 성정을 읊은 한시와 일본어, 영어를 비롯한 언어 공부와 근대 학문 학습의 전과정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데, 한 구본신참의 지식인의 지적 성장과 편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문체와 신체, 또 정체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데에도 좋을 실마리가 될 듯하다.

7) 황호덕, 「정체(政體)와 문체(文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언어정치학과 조소앙(趙素昂)-한문자(漢文字)의 맹서(盟誓), 조소앙의 선언,성명,강령 집필과 『한국문원(韓國文苑)』을 중심으로」, 『사림』 45호, 수선사학회, 2013.

8) 이 글은 조소앙의 유학 일기 『동유약초(東遊略抄)』를 번역하고 해제해 가며 떠올린 상념들에 대한 기록이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황실특파유학생의 일기이자 유학 전과정의 기록이며, 당대의 일기로 이를 능가하는 장기 기록은 오직 윤치호의 영문 일기 말고는 없는 것 같다. 한문으로 일기를 쓴다는 것,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음을 때로는 한시로 때로는 한글 문자로 토해낸다는 것, 국한문체로 정치와 공론의 장에 개입하고 외국서적을 번역한다는 것, 일본어로 전보를 친다는 것, 부계 혹은 모계 혈족과 그에 맞는 언어로 편지를 나눈다는 것, 외국어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 음성 문자의 체계로 환원될 수 없는 과학의 언어를 익힌다는 것의 의미들에 대해 물론 이 글에서 다 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체, 신체, 정체, 문체라는 논제를 염두에 두고 되도록 하나 하나의 문장이 향했던 바를 몇 개의 지향으로 나누어 논지를 개진해보려 한다.

9) 三均學會 編, 『素昂先生文集』下, 햇불사, 1979, p.183. 조소앙의 문장은 왼쪽 문집 상하권을 텍스트로 삼되, 다음의 자료집,번역선집을 참고했다. 國學振興事業推進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趙素昂篇』1-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1997. 姜萬吉 編, 『趙素昂』, 한길사, 1982. 한국어 번역본이 올해 출간될 예정이다. 조소앙 지음, 『대한제국의 마지막 유학생, 조소앙의 동유약초』, 김보성·황호덕 옮김, 현실문화, 2015년(근간). 다케이 하지메 선생이 번역과 관련 자료를 흔쾌히 내주어서, 번역과 해제가 가능했다.(武井一, 『趙素昂と東京留學』-「東遊略抄」を中心として- 波田野研究室, 2000.) 이하 인용은 일기의 연월일로만 표시한다.

2. 官文, 관료로의 길: 대한제국의 마지막 유학생, 황실특파유학생들의 입시

성균관 유생 조용은(趙鏞殷)이 대관의 자제를 대상으로 한 황실특파유학생 선발에 응시한 것은 1904년 7월이었다. 성균관에서 수학한지도 두 해가 지났었다. 응시자격이 애초에는 칙임관 사친(四親) 이내 16-25세의 자제였다가 주임관 사친 이내 16-30세까지로 확대된 결과 선발 시험에는 총 143명이 응시했다. 1904년 9월 5일(음력 7월 26일) 학부 본부에서 행해진 시험은 작문을 주로했는데, “留學必以忠孝本”라는 주제에 대해 국한문으로 논하는 문제였다.¹⁰⁾ 다행히 후에 ‘소양(素昂)’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될 18세의 조용은은 무난히 합격했다.

당대의 성균관은 이미 옛날의 성균관은 이미 아니었다. 당시의 성균관 경학과는 이미 구본신참(舊本新參)의 방침 아래, 사서삼경과 사서를 언해본과 함께 교육하고 있었다. 당대의 논객 박사 신채호가 친구학을 겸해 교수하고 있었고, 유인식(柳仁植), 변영만(卞榮晩), 김연성(金演性) 등이 재학중이었다. 자국사[本國史]와 세계사[萬國歷史], 한국지리[本國地誌]와 세계지리[萬國地誌], 작문, 산술 등도 아울러 가르쳤고, 시중 서점에서 접한 각종 신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다. 성균관 수학 중, 산림과 천택(川澤)을 일본에 파려는 ‘역신(逆臣) 이하영(李夏榮)’ 등에 항의 격토(激討)하여 신채호 등과 함께 성토문을 정부에 올리기도 했던¹¹⁾ 조용은으로서는 작문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응시자 중 1/3 가량이 48명이 신체검사와 작문 시험을 거쳐 황실특파유학생에 선발되었다. 과거를 유학이 대체하고, 과문(科文)을 국한문제 사용 능력과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이 대체하고 있던 시기의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2년 후인 1906년, 강한 규율, 적응 실패 등으로 귀국해버린 황실특파유학생의 자리를 다시 채우는 보결시험이 치루어지는데 이 때의 시험과목은 일어(일어 회화와 일어의 한역(漢譯)), 산술, 이과, 한문 등으로 바뀌어 있었다.¹²⁾

3. 國文, 입신과 계몽의 길

3.1. 관료제와 국한문제

계몽 및 국민 문체의 필요와 같은 ‘당위’와 함께, 국문 혹은 국한문체의 일반화를 낳은 가장 중요한 계기로서 일찍부터 법률에 의한 국가 공식 문체 결정이 그 ‘제도’적 기반으로 논해져왔다. 이를테면 칙령 제1호 「공문식」 제14항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흔히 인용되어 왔다.

제14조. 법률(法律), 칙령(勅令)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¹³⁾(인용자: 한문 원문의 번역 인용임)

국문 사용을 명령하는 ‘한문’ 칙령은 이듬해 1895년 5월 8일 개정되는데, 칙령 제86호 「공문식」 제1장 제9조는 한문 칙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국한문체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그야말로 국문으로 본을 삼은 것이다.

第9條.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써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惑 國漢文을 混用함.¹⁴⁾

10) 武井一, 『趙素昂と東京留學』-「東遊略抄」を中心として - 波田野研究室, 2000 참조.

11) 김기승, 『조소양이 꿈꾼 세계』, 지영사, 2003 참조.

12) 최명환, 「쟁쟁한 官費留學補缺試驗」『別乾坤』 1927년 3월호, pp.22-23. 불과 15명 내외 선발에 무려 200여 명이 모였다 하니, 이미 일본유학이 입신출세의 첩로라는 인식이 만연했고 그런만큼 일본어 해득자도 크게 늘었음이 짐작된다.

13) 公文式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高宗實錄』 高宗 31年 11月 21日 (癸巳). 1894.11.21..

14) 『高宗實錄』 高宗 32年(1895) 5月 8日.

그런데,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시간을 두고 관리 선발의 기준이 되었음은 별반 지적되지 않는 것 같다.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새로운 관리선발 방식이 필요해졌고 그에 따라 설치된 것이 전고국(銓考局)이다. 「銓考局條例」에 따르면 각 부가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을 거쳐 관리를 선발하는데, 보통 시험 과목으로는 “國文·漢文·寫字·算術·內國政·外國事情·內政外事”¹⁵⁾이 있었다. 그리고 1905년 통감부에 의해 전고국이 문관전고소로 개칭되면서 시험과목은 더욱 근대 관료제의 필요에 맞추어진다. 「文官銓考所規則」에 따르면, 시험 과목은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초고과목에 논문, 공문, 역사, 지지(地誌), 산술, 이학이 있었고, 2차 시험인 회고과목에는 정치학, 경제학, 국제법, 이학이 있었다.¹⁶⁾ 그런데 실제로는 한성외국어학교·인천일어학교·평양일어학교 등 관립외국어학교와 관립중학교 졸업생 및 외국유학으로 이에 준하는 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1차 시험 초고를 면제했고, 각 관청의 견습생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도 실무를 안다하여 초고를 면제했다. 특히 사립학교 중 중학 이상의 교고를 졸업한 자의 경우 학교의 청원에 의해 초고를 면제할 수 있게 했는데, 결국 선린상업학교 등 일본인 경영의 사립학교 졸업생에게 유리했다 이야기된다. 그리고 1908년의 「문관임용령」(1908.7.23.)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법률 또는 정치 경제의 학과를 졸업”한 자는 주임 문관 전형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다.¹⁷⁾ 조소앙이 관리의 꿈을 꾸었을 1904년을 전후한 시기에 관리 선발을 고려하면, 유학생들이 어떤 교양을 염두에 두었고, 어떻게 그토록 많은 유학생 잡지나 유학생 기고들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가 짐작되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상론하지는 않겠지만, 독서인들의 배치와 이념에 따라 다종한 문체들로 된 많은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다. 아울러 1907년을 전후해서 거세게 일어난 학보운동의 주요필진들이 유학생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학생이자 계몽가였고, 유학생인 한편 나라의 관인이라는 정체성을 아울러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료가 될 준비는 곧 계몽가로서의 문체가 준비되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신과 실용과 계몽의 문장으로서 ‘국문’(실제로는 국한문체)이 제도화되어 갔다는 사실이 곧바로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문장에 몸과 마음과 표현을 맞추어갔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조소앙은 유학 기간 내내 한문으로 일기를 썼으며, 한시로 성정을 표현했으며, 그런 한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등의 신문, 『공수회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흥학보』 등의 잡지에 국한문체로 많은 논설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오직 한편 밖에 전하지 않지만 도쿄부립일중 『학우회잡지』에 일본어로도 짧은 수학여행기를 썼다.

대체로 『동유약초(東遊略抄)』에 실린 글들을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일기문인 만큼 사적인 일상을 적은 신변적 글이 대종을 이룬다. 간단한 한문으로 되어 있고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일어난 일의 메모에 가깝다. 둘째 객수, 우국지정, 근친에 대한 그리움, 우정을 읊은 한시들이 적잖이 수록되어 있다. 공부에 승하면 한시가 줄고, 마음이 복잡해 공부를 잡지 못하면 한시가 든다. 셋째 한국의 신문 잡지에 기고했거나 지인들의 서적에 발문으로 준 논설들이 있다. 미디어에 게재된 글들은 대개 동맹퇴학, 을사보호조약, 제2차 한일협약과 같이 사건에 격발되어 쓴 것이 많고, 또 국망원인을 분석한 정치 일반론도 있다. 아울러 일기에는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두 가지 글쓰기가 시험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법학, 정치학 서적들을 번역하며 읽어간 흔적이 간간히 보인다. 유학 중 후반부에는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이 뚜렷하다.

15) 『高宗實錄』 高宗 31年 (1894) 7月 12日 “銓考局條例: 一, 銓考局, 掌考試各府衙所送選舉人. 其試驗有二法: 一, 普通試驗, 一, 特別試驗. 一, 普通試驗. 國文、漢文、寫字、算術、內國政、外國事情、內情外事, 俱發策. 一, 特別試驗. 准該人所帶選狀內所註明適用才器, 單舉發題. 一, 普通試驗後, 許赴特別試驗.”

16) 『高宗實錄』 光武 9年(1905) 4月 24日. 단 예외규정을 두어 사서(四書) 및 현행법률에 대한 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17) 『純宗實錄』 隆熙 2年(1908) 7月 23日.

3.2. 교술적인 것으로서의 국한문체: 報道와 論說의 문체

조소앙은 을사조약, 조선인 고등교육 불가 인터뷰 사건, 와세대 모의토론사건, 제2차한일협약 등 중요한 사건마다 이에 대한 유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설을 한국의 신문 잡지에 기고했고 이를 일기에 남겼다. 베를린 영사로 독일에 체재하다 을사조약 후 귀국한 형 조용하로부터 『대한매일신보』를 부정기적으로 받아보던(동유약초:1906.10.12..) 조소앙은 1907년 1월 29일부터 신문을 정기구독했으며, 중요한 사건 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이 신문에 기명, 무기명으로 기고했다.

『동유약초』에 등장하는 집필 관련 대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글들은 일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해당 시기에 쓴 글들이다.

1905년 12월 11일 “퇴학의 원인”을 초출하여 글 한편을 썼다.

→ 「日本에 遊學하는 韓國官費生들이」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5일-16일

1906년 12월 1일 “우리 이천만 동포에 고하는 글”을 지었다 공수학회주필에게 보냈다.

1907년 1월 7일 “신교론” 한 편을 지었다.

→ 「신교론」, 『대한유학생회학보』 제1호 1907년 3월

1907년 2월 11일 “학보게재의 건 一文”을 쓰다.

1907년 3월 21일 “녹림시대” 1편을 저술하다.

1907년 3월 23일 “글을 몇 장(章) 지어” 공수학회 다음호에 게재함이라.

1907년 3월 26일 “친목회보발간축하”를 쓰다.

1907년 7월 18일 “헤이그사건에 관한 삼대 선언서”를 기초하다.

1907년 7월 29일 “몇 줄의 문장”을 만들어 대한매일신사에 보냈다.

1907년 7월 28일 “논설”을 한편 썼다.

(「新韓國人是 新韓國熱을 요할진대」, 『대한흥학보』 제1호, 1909.3.)

(「學生論」, 『대한흥학보』 제4호, 1909.6.)

(「北關大捷碑事件에 對하여 我的 所感」, 『대한흥학보』 제5호, 1909.7.)

(「會員諸君」, 『대한흥학보』 제7호, 1909.9.)

(「歲己酉終의 舊韓을 送함」, 『대한흥학보』 제8호, 1909.12.)

(「甲辰以後 列强大勢의 變動을 論함」, 『대한흥학보』 제10호, 1910.2.20)

1910년 7월 25일 메이지대학 1년 교외생 문제를 다뤄달라 부탁받아 요즈음 동안 세편 쓰다.

1910년 8월 21일 “한일합방성토문”과 “위임장” 2통을 작성

1911년 10월 10일 “상공월보기념호”에 축사를 쓰다

1912년 1월 12일 “추도문” 한 편을 지었다.

1912년 1월 24일 “부인론” 한 편을 썼다.

1912년 1월 27일 “대아주의(大我主義) 연설의 초안을 잡아 초고를 썼다.

1912년 2월 8일 “부인론”과 “도덕과 종교”를 보낸다.

咨咨女舊韓아 四千載凶行悖德은 이에 今日慘狀을 馴致하였고 二千萬蒼生에 播傳한 罪惡은 이에 今日淪亡을 胚胎하야 爾의 罪惡이 이미 窮極한지라 匹夫匹婦가 一日二日の 曷喪을 是望하느니 退할지어다 去할지어다 爾는 我民族을 老케 한 者며 病케 한 者며 亡케한 者이니 爾罪를 毛舉하고 爾惡을 歷數하면 山이 오히려 低하고 海가 오히려 淺하리라 今에 四大罪惡으로 爾를 聲討하노니 聽할지어다

…(중략)…

上帝若曰 咨咨女舊韓아 命爾舊韓하야 宅于東土에 三千里是疆하고 二千萬是民하느니 輻員既長하고 庶黎既多어늘 四千年長失年月에 治積이 不舉하고 罪惡이 實盈하느니 歷數有窮이라 退哉退哉어다

懼흡다 天命이 不又어늘 爾惡이 既極하얏시니 退할지어다 爾여 去할지어다 爾여 慕古事大는 生民에 賦與하신 自由自存의 元理를 逆함이오 賢能을 妬하고 奸凶을 信함은 生民에 賦與하신 良知良能의 本

領을 擄滅홀이오 附外偷生은 生民에 賦與호신 獨立獨步의 本能을 拋棄함이라 上으로 逆天의 罪와 下
 으론 病民의 責이 其極이 至此호니 宇宙가 비록 至廣至大호는 爾罪는 容할수업는지라 有昊가 爾를
 逐호사 有虎에 投畀호시느니 退홀지어다 爾여 去홀지어다 爾여 爾의 退가 一日이 晚호면 帝國宗社는
 一日이 猶危호고 爾의 去가 一日이 遲호면 國民慘狀은 一日이 猶極호리니 神聖호 宗社를 爲호야 退
 홀지며 敬愛호 民族을 爲호야 去홀지어다 爾가 萬一彷徨踟躕호야 因循不退호면 女를 孥戮호며 女를
 剿滅홀지니 今歲로 同히 退홀지어다 奄急急如律令 기유년(1909) 끝에 구한(舊韓)을 보냄¹⁸⁾

드물기는 하지만 국문 가사를 지은 사례가 한 차례 나오는데, 애국 가사에 가까운 톤이고 독립군가
 의 영향이 농후하다

◇ 1911년 12月20日(水曜)

上午7時起眠. 自9時至10時, 受課業來. 偶於筮中得韓詩, 如下:

不如歸詩.

1. 空山明月夜三更에 슬허우는 杜鵑시 소리소리不如歸, 故國山川生覺호니 도라가기志願이라. 저담
 빗히 질뿔까지 목에 피가 마르도록 哀鳴聲不絶호니, 杜鵑시야 mreubojja 너의 녀시 누구런가.

2. 不如歸不如歸호니 네소리가 슬흐고나, 馬島寒雪점운날에 복슈草에 구지가고 一脈봄을 挽回코져
 竭力忠誠이쓰다가. 文文山에 義론忠誠 燕獄魂化作호니, 故國山川못잊져서 그의녀씨 네안이나.

3. 不如歸不如歸호니 네소리가 슬흐고나, 萬國冠蓋모힌곳의 存在誠心 깊히품고 滿腔熱血을 沸盡호
 야 握手世界호라다가. 七日淚가 未乾호야 春庭魂을 化作호니, 故國山川못잊져서 그의 녀씨 네안이야

4. 不如歸不如歸호니 네소리가 슬흐고나, 萬里朔風미운날의 平和主義홀로품고 ○將軍을 逆繫한後
 大韓萬歲부르다가. 捕獲中에 陷落호야 外土孤魂化作호니, 故國山川못잊져서 그와같이 無人離家.

去國詩

1. 근다근다 ㄴ는근다 너를두고 ㄴ는근다
 暫時뜻을 이런노라 ㅈ불디는 이시운이
 나의등을 니맡어셔 너를저느 가게호니
 일노붓허 여러히를 너를보지 못홀지느
 그동안에 ㄴ는오작 너를위히 일호리니
 나간다고 슬허마라 ㄴ의사랑 韓半島야.

2. 근다근다 ㄴ는근다 너를두고 ㄴ는근다
 저時運을 디적타가 熱血글을 뿌리고셔
 네품속에 누어자고 네兄弟를 닷깨여셔
 흥번씨끗희 바스면 속이시원 호깃다만
 將來일을 심각호고 분을참고 씨나가니
 니가가면 永갈순야 나의사랑 韓半島야.

3.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두고 나는간다
 只今너를 離別호後 太平洋과 大西洋을
 건널찌도 잇슬시면 씨베리아 滿洲들에
 단일찌도 잇슬지며 나의스릉 韓半島야.

4. 간다간다 나는간다 只今離別 홀씨에는 빈주먹만
 들고가나 以後相逢 홀씨에는 旗를들고 올테이니
 눈물흘린 이이별이 깃분歡迎 되리로다
 惡風暴雨 甚호잇찌 부디부디 잘닛거라
 後날다시 만나보자 나의사랑 韓半島야.

18) 1909년 12월 『대한홍보』 제8호에 쓴 글. 『소양선생문집 하』(삼균학회, 1979)의 제6편 일본 유학시절의 글
 에 실려 있다.

未知誰作，而稍得詩格，可像想其真意耳。午後散策于日比谷園1時間許，即歸寓。是日天氣甚暖和耳。

4. 人文, 사람의 길: 사적 인간, 신체 속의 문체들

4.1. 정(情)의 분자로서의 한시문

과문과 시문의 분리? 실용문과 문학어의 분리? 어떻게 불러야 옳을까. 『동유약초(東遊略抄)』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적 기록은 한문으로, 공적 기록은 국한문으로 쓴다는 새로운 분절 현상이다. 후에 나타날 지정의(知情意)의 분할과 ‘情의 분자’(이광수)로서의 근대문학론과는 상반되는 분할이지만, 어쨌든 어떤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다. 국한문체는 계속 공공성, 계몽성, 정치어의 자리에 있었으나 정(情)의 분자를 싣는 미디어는 한시문(漢詩文)에서 한글 문학 쪽으로 옮겨갈 터였다.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의 분리에 따른 문체의 재배치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이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조소앙의 일기는, 문학사적으로 보자면, 이광수가 열어갈 시대를 예비하거나 준비했다고도 할 수 있다. 지와 의와 관련된 논설의 분리-국한문체의 분리는 공통된 현상이었지만, 다만 정(情)의 자리는 각각 한시문과 한글문학으로 전혀 달랐다. 조소앙에게 한시문로 대변되는 문체야말로 신체의 언어였고, 오히려 국한문체 쪽이 근대적 인공어=정체의 문체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급변하는 정체(政體)의 언어였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청운의 꿈을 안고 떠난 초기의 유학에서는 시국이나 사건과 관련된 논설이 신변 메모와 함께 많이 등장함에 비해, 대체로 제2차 한일협약과 병에 의한 입원 등을 겪고 나서는 뚜렷하게 한시들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조소앙의 논설적 글들은 1907년의 학보 운동기에 절정에 달한 후, 오히려 한일합방이 가까워지면서 위축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합병 몇 달 전부터 귀국 때까지 조소앙에게는 항상 경찰이 따라 다녔다. 그는 정작 경술국치 때는 일기를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기를 옆집의 옷장에 숨기기까지 한다. 따라서 1910년 8월 26부터 9월 14까지는 심문 위협으로 일기조차 쓰지 못하고 이웃집의 옷상자에 일기를 감추어두었다 적고 있다.

1910년 5월 19일 이완용 암살미수범 이재명의 사형선고 때도 “젊은 나이에 비분강개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무슨 한이 있겠는가. 다만 모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사가 눈물을 흘리며 원망할 뿐이었다. 정말 안타깝다.”라고 쓰는 등 정치 변동에 매우 민감하고 학보나 기타 언론활동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이러한 언설의 공간은 한일합방을 전후에 거의 폐색되게 된다.

○ 5월 19일(목요일)

기숙사에 있었다. 행리혜성[賀禮彗星]이 이날 오전 11시 20분경에서 영시 20분경까지 태양면을 가로지르기에 망원렌즈[墨塗硝子]로 봤는데 별달리 기이한 현상은 없었다. 그러나 이를 크게 다루어 민심을 술렁이게 하고, 미국과 이탈리아는 이를 세계 멸망의 징조라며 내년에 통국할 일이 있다고까지 했으니, 열국외변사(列國外變史)에 상세하다. 강전(姜堉)군이 편지를 부쳐 빛을 독촉했다. 이날 바람의 기세가 드세어 조금 한기가 있었다.

이완용(李完用)의 암살미수범인 이재명(李在明)이 드디어 이달 18일에 극형을 선고 받았다. 그 나머지 연루된 사람들은 최고 15년, 최하 5년 징역이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비분강개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다만 모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사가 눈물 흘리며 원망할 뿐이었다. 정말 안타깝다.(화씨 56~67도)¹⁹⁾

19) ◇5월19日(木)

在舍耳。賀禮彗星，是日午前11時20分頃至零時20分頃，橫過太陽面之，故以墨塗硝子觀之，別無奇象，但以此大爲，騷動民心，美國與伊國，甚至以此爲世界滅亡之兆，來年號泣者有之云，詳在列國外變史耳。姜堉君寄書，督債耳。是日風勢大作，稍有寒氣。

李完用暗殺未遂者李在明，遂於本月18日受極刑宣告，其餘連累，15年至5年間懲役，以若年少慷慨，爲國殉身，夫何恨也？但謀事未成，烈士泣怨，可歎可歎。(華氏 56~67)

이미 그 전에 친구 이창환이 배일파라 하여 귀국후 남대문역에서 포박당하는 상황, 귀국도 하지 못한 채 일본에 머무는 심정(1910.8.12.)을 표현하며 망국을 확신하는 심정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를 오직 국내의 조선인만 모른다 쓰고 있다. 논설도 한시도 시들해지는 무력감으로 빠져든다. 망국전야 속에 철학적 탐구로 침잠해들어가는 조소앙(1910.5.20.. 5.28)은 국망의 상황을 자기 내면의 단련으로 극복하려 노력.(1910.7.18.)해 보기도 한다.

미행이 따라붙고 상시 순찰의 감시대상이 된 유학생들 합방 직전의 살벌한 상황에서 조소앙은 집회를 주장하고 경찰서장과 논쟁을 벌이지만 얻을 게 없는 상황이라는 학우들의 의견에 따라 집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망국 후의 소회를 적은 어느 하루의 일기다.

○ 1910년 11월 24일(목요일)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왔다. 이날 큰 바람이 느지막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여관으로 돌아오는데 석양이 반쯤 기울고 고목이 바람을 두려워하며 위태롭게 서있었다. 뜰 가득 가을 풍경이 다만 절로 스산하여 감회가 많게 했다. 텅 빈 여관을 배회하며 하늘을 보고 휘파람 한 번 부는데 갑자기 멀리서 기러기가 울며 왔다. 나에게 호소하는 듯, 또 나를 아는 듯했다. 생각이 망연자실해져 묵묵히 자연계의 큰 이치를 관망했다. 이때 중천을 가로지른 크고 높은 고목이 흔들흔들 넘어지려 했다. 우러러보며 스스로 탄식하고 변고를 말하자니 정말 한탄스러웠다. 이것은 우리 4천년 역사를 대표하고 우리 2천만 동포의 영예(榮譽)를 드날려 빛낸 독립 전권(專權) 공사관(公使館)의 큰 깃대였다. 을사년 겨울에 조(趙)모 공사(公使)를 멀리 이별하고 지금까지 7년을 초연히 홀로 서서 올 사람을 기다렸는데, 금년 가을에 접어들자 소망은 끊어지고 맹렬한 바람이 꺾어버릴 듯 불어 통분과 비탄을 절로 이기지 못했다. 넘어지려다 도리어 서고, 서려다 오히려 넘어져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바가 있었다. 아아, 저것에 마음이 있겠는가? 어찌 지각(知覺)이 있겠는가? 보는 사람이 절로 감회가 생겨 여기까지 생각했을 뿐이다.

밤이 깊은 때 우연히 강매(姜邁)·윤태진(尹台鎭)군과 요리점(料理店)에 갔다 왔다.²⁰⁾

서로 의논조차 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계속되는 감시는 극도의 피로감으로 표변하는데, 심지어 공허와 자탄과 무기력 속에서 침잠해가던 교회와 성경 읽기에도 일본순사가 따라붙어 12월 25일(1910) 크리스마스까지 감시를 받게 된다. 일본순사의 경계하고 순찰하는 것이 지긋지긋하였다. 여러 번 적고 있다.

○ 1910년 12월 1일(목요일)

학교를 쉬었다. 이날 오전 1시 반에 깃대가 폭풍이 불어 넘어졌다. 그 소리가 호소하는 듯 월망하는 듯해, 고요한 밤 홀로 앉아 등불을 벗히고 듣자니 처량함을 더욱 일깨워 줄줄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시를 읊었다.

소슬한 새벽녘 비갠 하늘 아래,	曉氣蕭涼雨後天,
텅 빈 뜰의 비스듬한 깃대 여전히 의연했네.	空庭橫立尙依然,
하룻밤 폭풍으로 그대마저 거꾸러지니,	暴風一夜君從倒,

20) ◇ 1910년 11월24日(木)

赴校, 完課來. 是日大風晚起, 自校歸館, 西日半頽, 老樹畏風然危立, 滿庭秋景, 只自蕭條, 令人多感, 徘徊空館, 望天一嘯, 忽有遠鴻叫來, 如訴我而又如知我. 所思茫然自失, 默觀自然界大理, 此時中天貫橫之老大高木搖搖欲倒, 仰觀自歎云故, 可歎. 是乃代表我4千年史, 揚輝我2千萬同胞之榮譽之獨立專權公使館大旗竿也. 乙巳之冬, 遠別趙公使, 于今7年, 超然獨立, 以待來人, 今年秋來, 所望絕矣, 而猛風摧吹, 自不勝慟憤悲歎, 欲倒反立, 欲立旋倒, 有不能自抑者. 嗚呼, 彼有心耶, 豈有知耶, 觀之者自有感, 而至此耳. 夜深, 偶與姜邁及尹台鎭君往料理店來.(注:旗竿圖略)

만리 너머 유학하는 사람 역시 가련하도다.

萬里遊人亦可憐 . 21)

망국의 공사관에서 비바람에 거꾸러진 깃대를 보며 거기에 망국의 정을 의탁(1910.12.1.)하던 조소앙은 종교철학적 심회가 더욱 깊어져 갔다. 1911년에는 1월 1일 일기를 시작하면서는, “주후(主後) 1911, 공자 탄강 2461, 단군개국 4244, 대한민국개국 520년”이라 적어 정신적 공황을 이기려 여러 종교들을 오가는 마음의 상황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1911년 이후의 유학생생활은 거의 구도자적 자세에 가까운 것 같다. 병을 무릅쓰고 성경 읽기 모임에 참여하거나(1911.1.4.), 도덕경과 장자를 구하여 읽거나(1911.1.16.) 하다가는,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깨우침으로 다시 공자의 말씀 <논어>로 돌아오는 상황이 연출된다.(1910.2.9.) 그리고는 날을 새어 시경을 읽는다. 나라가 망한 다음 해의 몇 달은 조소앙에게 예수, 베이컨, 맹자, 노자 장자를 읽어가며 방황을 이겨내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소앙이 말했다.”라고 쓰며 자기의 수양과 종교 철학의 뚜렷이 정립해 나간다. (이른바 육성교로의 길이었다.) 3월 내내 자기 철학을 명제화해 정리해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설날 그믐까지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감시를 통해 조선인이라는 세 글자를 떠올린다.

○ 1911년 12월 31일(일요일)

(전략) 이날은 이 해의 마지막 날이라 옛날을 가만히 생각하면 감회가 없지 않았다. 돌연 절로 마음이 답답하던 중에 미행 순사 코마츠[小松]가 와서 말했다. “내일은 정월 초하루니 사적인 감정상 피차간 편치 않은 일이 생기면 내일부터 3,4일간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출입한 대강을 말해주길 바란다. 남겨 두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일 탐정이 뒤따랐다.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조선인(朝鮮人)’이라는 3글자가 그 원인이 된 것이리라.²¹⁾(후략)

4.2. 우국의 정(情), 골육의 정, 한시문: 거꾸러진 깃대, 마음의 문장들

계몽기의 문체 변동은 대개 이행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구본신참의 교육에서 신본구참의 교육으로 이행해 온 이들 황실특파유학생들에게 한시는 곧 두고온 조선과 조선의 가족, 또 우국 의식의 문체였다. 비단 이들 뿐 아니라 한문 교양에서 시작해 근대 교양으로 이른 많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복수의 문체는 이행의 과정이 아닌 때와 필요에 따른 분절로 경험되었을 터이다.

조소앙의 경우, 유학기의 한시는 우국지정을 쓴 부류와 객수, 근친에 대한 그리움, 우애를 쓴 부류로 나눌 수 있겠다. 논설화할 수 없는 지경의 우환의식, 객수가 커질수록 한시의 빈도가 높아진다. 문체가 이행이 아닌 특정한 심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2차 한일협약으로 사실상 외교 뿐 아니라 내치의 권한도 상실한 대한제국의 상황에 대한 소식은 조소앙에게 병으로서 발현된다. 그는 1907년 8월 13일부터 거의 한달간 치질과 피부병 등으로 입원하게 되는데 이 상심의 시기 이후 한시가 급속히 일기에 많이 등장한다.

객은 중추월 병든 가운데 눈물 흘리고,
온갖 생각에 마음 졸이니 한 바탕 꿈 아득하도다.

客中秋月病中流,
萬慮忡忡一夢悠.

21) ◇12月1日(木)

休校. 是日上午1時半, 旗竿因暴風雨倒了, 其聲如訴如怨, 靜夜獨坐, 伴燈听之, 益覺淒涼, 不禁熱淚滂沱, 乃吟韻曰:

曉氣蕭涼雨後天, 空庭橫立尚依然, 暴風一夜君從倒, 萬里遊人亦可憐.

自朴允喆來函.

22) 是日此歲之最終日也, 撫念伊昔, 不無感懷, 兀然自悶中, 尾行巡查小松也, 來告曰: “來日是元日也, 則私情上彼此間有難安之端, 請自明日及至3-4日間, 隨時來告矣, 言其出入之大概, 留置以示爲要云.” 吁, 自去年至此, 每日隨後偵探, 此不知何故, 而必以朝鮮人3字, 爲其原因也夫.

만폭의 위로 글 많이도 감격스러우니,
그댈 위해 이제부터 근심하지 않으려네.

滿幅慰章多感激,
爲君從此欲無愁.

반나절 총총히 화류의 계절(음력 7월) 함께 하고,
누각에 기대 서글퍼하니 생각이 아득하도다.
한국 강산은 오그라들어 돌아갈 곳 없으니,
객의 시름 아닌 나라의 시름거릴세.

半日忽忽與火流,
倚樓悵悵思悠悠.
韓山蹙蹙無歸處,
不是客愁是國愁.

팔도에 분분히 끓는 피가 흐르고,
죽고 사는 가을 꿈이 더욱 아득하도다.
하늘이 응당 초나라 세 집²³⁾을 남기리니,
한국 조무래기들 걱정거리 못 된다고 말하지 말라.

八道紛紛沸血流,
存亡秋夢轉悠悠.
天應遺有楚三戶,
莫道韓兒不足愁.

-동유약초:1907년 8월 14일

친우들의 문병, 전별 등에 한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1909년 8월 23일 단 하루에만 이승근과 이
별하며 7편의 율시를 지었다. 한시들은 대개 객수와 우정과 육친애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 1907년 1月5日(陰 11月21日 土, 晴)

어머님께서 쑥대[艾帶]와 면대(綿帶)를 만들어 보내셨기에 곧 시를 썼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此從何處到,
천 리 밖 나의 외가에서라네.	千里外吾家.
쑥대는 푸른 쑥잎으로 만들었고,	艾成蒼艾葉,
면대는 흰 목화로 대신했구나.	錦代白綿花.
모본단 ²⁴⁾ 처럼 따뜻하고,	暖如毛奉段,
길상사 ²⁵⁾ 처럼 부드럽네.	柔似桔常紗.
차갑지도 않고 젖지도 않으니,	無冷能無濕,
띠 중에 제일 훌륭하도다.	帶中第一佳. ²⁶⁾

이날 이(李)모와 한(韓)모 두 벗이 찾아왔기에 한 잔 했다. 운자(韻字)를 부쳐 보냈다²⁷⁾.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낙망한 감정이 국가 존망에 대한 우환의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서정을 읊는 데 기울어져 있다. 조소앙 일가의 육친애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대개 한시 교환과 관련
되어 있다. 조부가 보낸 시로 조부의 건재함을 안다(1907.12. 1.)거나 아우, 형, 조부와 운을 주고 받
는다거나 하는 일은 상례화된 문안에 가깝다. 조소앙은 심지어 꿈에서 아우가 쓴 한시의 한 구절을
깨어나 생각해내기까지 한다.

23) 원문은 '楚三戶'. 초(楚)나라 사람들이 진(秦)나라를 철천지원수라 여기므로 초나라 세 집만 가지고도 진나라
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여기에서는 한국은 초나라에, 일본은 진나라에 각각 대응된다.

24) 원문은 '모본단(毛奉段)'으로 되어 있으나, 비단의 하나로 정밀하게 짜여졌고 윤이 나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가 놓인 '모본단(模本緞)'을 의미하는 듯하다.

25) 원문은 '길상사(桔常紗)'로 되어 있으나, 여름 옷감에 사용되는 중국 생사(生絲)로 짠 비단인 '길상사(吉祥紗)'
를 의미하는 듯하다.

26) ◇ 1907년 1月5日(陰 11月21日 土, 晴)

27) 武井一, 『趙素昂と東京留学』-「東遊略抄」を中心として - 波田野研究室, 2000 참조. 일역본 1907년 주석 3
번 참조.

○ 1907년 9월 23일(8월 16일 월요일, 흐림.)

여관에 있었다. 오후에 벗 조(趙)모의 여관을 방문하고 왔다. 이날 밤 꿈에, 아우 용주(鏞周)가 점(占) 운과 대(臺) 운으로 지은 오언시를 봤는데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제 1구의 반은 “세상을 꼭 무대에 오른 듯 거니네[涉世恰如上舞臺].”였다.²⁸⁾

5. 중국혁명과 신아(新亞)의 한시문

그런데 이러한 한시문의 사적 신체화 현상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중국의 재발견이었던 게 아닌가 한다. 강유웨이(康有爲)를 통한 유교의 재발견도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然而挽近以來로 人智漸開호며 汎愛主義오 非獨善主義며 孔教는 世界主義오 非國別主義라호니 至當哉라 斯言이여 夫不深透孔教之原理호고 徒摘遺俗之弊習과 及夫腐儒之行動호고 敢言孔教者면 烏可免非觀管見之責哉아 然而鬼魅邪神은 子所罕言則斷之以人間的의 教而庶無誤矣오…(중략)… 淸國碩學康有爲는 嘗論孔教曰孔教는 進步主義오 非保守主義며 孔教는 惟一神教也라 蓋不問教之彼我호고 苟以教字名之則其所以勸善懲惡之道는 必不相殊오 且世既稱之曰三聖云則胡敢言長短得失於其間哉아²⁹⁾

그러나 무엇보다 도쿄의 청국 유학생들의 정치열에 대한 감명으로부터 신해혁명의 발발에의 놀라움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시문에 담겨 있다고 믿었으나 결국 사적인 감정토로에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던 문체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 1908년 10월 25일(10월 1일 일요일)

의복과 환약이 순동(巡洞)에서 왔다. 청나라 사람 대양필(戴良弼)³⁰⁾은 18살로 대단한 인재인데 만날 기회가 있었다.³¹⁾

○ 1908년 11월 19일(10월 26일 목요일)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청나라 사람 대씨(戴氏:대양필)의 숙소를 방문했다. 대청소를 실시했다.³²⁾

28) ◇9月23日(8月16日 月, 陰)

在館. 午後訪趙友館來. 是夜夢見舍弟鏞周占韻臺韻五字, 而未詳記, 但第一句半, “涉世恰如上舞臺.”

29) ◇ 1907년 12월 1일(木) (대한유학생회 학보 제1호 1907년 3월)

30) 대양필(1891~1949): 자는 계도(季陶), 필명은 천구(天仇). 중국국민당 우파(右派)의 지도자이자 정치가·이론가이다. 1905년 일본에서 유학을 시작해 1909년 일본대학(日本大學) 법과를 졸업했다. 1911년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하고, 1912년 비서로 손문(孫文)을 수행했다. 저서로 『일본론(日本論)』이 있다.

31) ◇1908년 10월 25일(10월 1일 日)

衣服與丸藥, 自巡洞來抵耳. 淸人戴良弼, 18歲人, 大才也, 有機面會耳.

32) ◇1908년 11월 19일(10월 26일 木)

赴校耳, 歸路訪淸人戴氏寓耳. 大掃除執行耳.